

군산산단서 '비트코인' 불법 채굴

한국산단공, 채굴업자 A씨 수사 의뢰... 공장 대표 B씨에게 공장 일부 공간 빌려 채굴장 만들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에서 불법으로 채굴작업을 하다 들통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산단공단은 14일 입주계약 없이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불법으로 비트코인 채굴작업을 한 채굴업자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채굴업자 A씨는 지난 10월부터 해당 공장 대표 B씨에게 한 달 전기요금을 대납을 약속으로 공장 일부 공간을 사용해 비트코인 채굴장

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려면 사업 목적에 맞게 입주계약을 해야하지만 A씨는 임의로 산단 내에서 채굴장을 차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비트코인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이 특별히 각광받는 이유는 특정 개인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본인이 소유주가 된다. 또한 특정 국가나 관

리하는 기관이 없으며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 비트코인이 각광받고 있어 비트코인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실제로 하루에도 1 비트코인의 시세가 1,6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큰 폭의 낙차를 보이고 있어 이를 이용한 단타투기세력들이 몰리고 있다.

국회는 투기를 위한 비트코인 매입 사례가 늘면서 이를 제재하기 위해 최근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비트코인 매매와 계좌개설을 금지하

고 시중은행은 이에 발맞춰 가상화폐 계좌 발급 금지 등에 나섰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이를 통제하는 국가나 기관이 없을뿐더러 익명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한 IP우회 등을 통한 수많은 거래를 정부에서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억압만 하는 정책은 가상화폐를 음지로 내몰리게 할 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현재 정부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이상민 기자



김남규 전주시의원 전북영화인총연합 감사패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송천1동)이 14일 전북영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한국영화인총연합 전라북도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전주국제영화제 설립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영화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전주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의원은 또 영화제의 기록물을 디지털화 하여 각종 기록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써 왔으며 전주영화제 작소 설립과 전주 독립영화 발전에도 앞장서 왔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김 의원은 "한국의 많은 영화가 전주영화촬영제작소를 거쳐 만들어지고 있고 올해 18회를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25개 영화제 중 하나로 뽑힐 만큼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했다"며 "앞으로 전주가 영화의 도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과 예술인 권리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김민근 기자



서남대 정상화 촉구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남대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남대에 대해 내년 2월 말로 폐교한다고 발표했다.

송천동 에코시티 상수도 배수관망 확충한다

전주시, 내년에 114m 길이 단독급수관 신설... 오송초 횡단 상수관로도

전주시가 송천동 에코시티 일대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배수관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입주 시작된 에코시티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늘어날 상수도 수요에 대비해 내년에 총 5억5,000만 원을 투입해 에코시티 급수구역 조정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정확한 사업예산은 전주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에코시티 내 공공주택에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단독라인 급수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에코시티 급수관은 천마배수지(일공급량 3만톤)에서 호성동 차량등록과 교차로를 지나 200m정도(D=500mm)를 우회해 간접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시는 114m 길이(D=700mm)의 단독급수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단독라인 급수관이 설치되면 에코시티 단지 내 1만1,882세대 3만2,903명 원활한 수도물 공급이 가능해진다. 시는 또 인근 오송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급수블록 재조정을 통해 특정시간대 낮은 수압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오송초 인근 상가·원룸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은 공급수량이 부족해 특정시간대(오전 6~9시, 오후 5~8시)에 수압이 저하되거나 출수가 불량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송천동 대송정제식당 앞 쪽으로 30m정도(D=500mm)하는 횡단 상수관로를 신설, 오송초 인근 300여 세대의 상수도 민원을 해소하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건축직들의 사랑나눔 재능기부

최근 중앙동 조은숙씨 집 고쳐줘... 봉사 6년째 이어져

전주시 건축직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 행보를 펼치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14일 전주시에서 따르면 시 건축직 공무원 90여 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건전회 회원들의 봉사활동은 지난 2012년 희망연탄 나누기를 시작으로 6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3년 전부터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전환해 팔복동 장애인 주택, 도덕동 화재주택에 이어 이번 중앙동 차상위 주택까지 어려운 이웃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앞서 이들 직원은 '어려운 이웃 사랑나눔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전주시 중앙동에서 86세 위계층인 조은숙(57)씨 가정을 선정하고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재능기부 봉사활동에는 송방원 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직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낡은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고 오염된 담장을 깨끗하게 세척했다.

이번에 사용된 봉사활동비 200여 만원은 회원들이 조금씩 정성을 모아 마련된 것이다.

조씨는 "그동안 여러차례 해피 하우스사업을 신청했는데 매번 탈락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전주시 건축직 직원분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아늑한 집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방원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조씨 가족들이 이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고위험 임신부에 의료비 지원

전주시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전주시보건소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시민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고위험 임신은 임신 또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임신으로, 보건소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과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인 산모가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소요된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3인 가족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20만907원, 지역가입자 22만2300

원 이하) 가구 중 조기진통(임신주수 20주 이상~34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분만관련 입원일~분만일 이후 6주), 중증 임신중독증(임신주수 20주 이상~분만관련 퇴원일)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산모이다.

지원금액은 고위험 임신부 입원 치료비 중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등을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의료급여수급자는 100%)까지이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나 국제결혼자 등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만취상태 역주행... 상대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검거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다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5)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14일 오전 3시 31분께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

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해 승합차 운전자 A(4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